

광주교육청 '시험지 유출' 감사 발표 추가 의혹에도 솜방망이 징계 '빈축'

A고교 기간제 교사 사의·B고교 정직 등 경징계 그쳐...학부모들 "시험 관리 체계 흔들" 분통

'사립고 시험지 유출 의혹' <광주일보 10월 14일자 6면>과 관련 출제 교사가 총 26개 시험문항 중 13개를 사설 사이트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북구 일곡동의 A고등학교와 광주시 서구 매월동 B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고교의 해당 교사는 사설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문제를 통째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초 학교에서 정한 시험 출제기간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였으나, 출제 마감을 하루 전인 25일 사설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돈을 내서 문제를 내려받아 그대로 출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교 업무에 쫓겨 문제를 출제하다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B고교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 이후 교사가 집에서 출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교사가 이용한 사설 사이트는 학생들이 시험 예상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었다.

인근 15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와 동일한 문제를 배포했으며, 총 응시인원 236명 중 43명 학생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연습문제를 구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사설 사이트 문제를 변형해 출제하려 했으나, 변형하면 나중에 오류가 생기거나 시험 문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대로 출제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이 있었던 B고교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을 징계 처분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3~7월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생 2명이 야간에 교무실에 침입,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십수차례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B고교 직원들에게는 학생들의 불법 침입, 시험지 유출 등을 사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지난 2018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로만 처분해 문제가 재발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교사 관리 주체인 학교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시교육청은 A고교의 출제 교사에 대한 징계안으로 '특별 장학 지도', '교직원 연수 실시'만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 터라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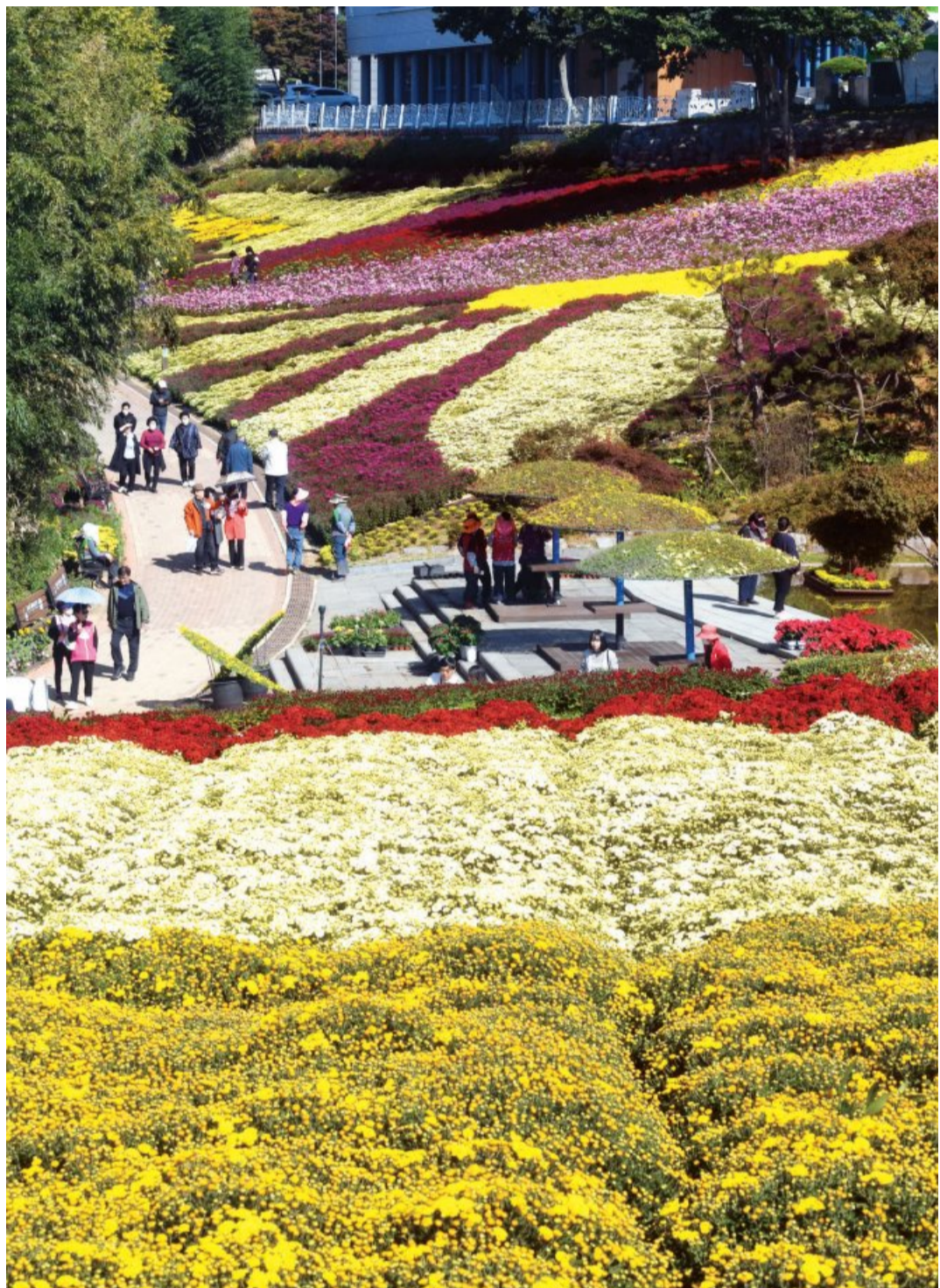
더욱이 해당 교사는 최근 학교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관리자 징계는 커녕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B고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또 교직원 6명에게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B고교에게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시험 문제 출제부터 시험지 관리까지 학교 교사 관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뒤바뀌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관리자인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산공원에서 사진 몇컷 찍으세요 27일 화순군 남산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은은한 국화향기 속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8일 개막하는 화순 국화축제는 다음달 13일까지 남산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가동 공·사립 277개원 접수·선발·등록 '원스톱' 서비스

광주지역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2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아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컴퓨터(PC)와 모바일로 유치원 접수·선발·등록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광주시교육청 산하 전체 공·사립유치원 277개 원이 대상이다.

학부모들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유치원 모집 요강을 확인한 뒤 31일부터 시작하는 모집 유형별 희망 유치원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유아모집은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모집은 오는 31일~11월 2일 사흘 동안 접수한다. 우선모집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으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4순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다. 보건교사가 배치된 공립 단설유치원은 건강취약 유아를 의무적으로 4순위에 포함해 모집하도록 했다.

일반모집은 11월 16~18일 사흘 동안이다. 개인 사정으로 일반 모집 기간에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는 11월 14일에 사전신청하면 된다.

추가모집의 경우 총원 또는 대기자가 없는 등 미달한 유치원에 한해 11월 29일부터 이뤄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여전

'학벌없는 시민모임' 지적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네 차례나 실시 하고 있지만, 법규위반사례는 줄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의 점검에서 272건의 안전점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보면 지난 2020년 34건 적발에서 지난해 136건 적발로 위반사태가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6건이 적발됐다.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합동 점검을 진행 하지만,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위반 항목은 후방경고음 미설치(32건), 어린이보호표지판 미설치(31건), 점식 좌석 미설치(27건), 후방카메라 미설치(25건) 등으로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2024년 말까지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http://www.namwon.go.kr

남원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남원이 미래산업과 함께 한 번 더 도약합니다

남원항공우주전문대